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언어를 번역하는 이치와 같다”

‘모르는 사람들’ 펴낸 이승우 작가
관계를 주제로 한 8편 수록



“소설을 쓸 때 단일한 의식을 가지고 쓰지는 않는다. 이번 작품집 또한 그동안 전작해왔던 연장선에서 주제 의식을 형성했다. 예컨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를 반영하는 작업



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사회적 이슈가 간섭을 했는데, 세월호, 탄핵국면의 충격이 들어와 있다.”

‘프랑스가 주목하는 한국 작가’ 이승우(사진). 그는 신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세계를 펼쳐왔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에서 이 작가의 소설 ‘지상의 노래’가 일곱 번째로 번역·출간됐다. 또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브롱도서전’에 참가해 프랑스 독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장흥 출신 이승우(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작가가 최근 소설집 ‘모르는 사람들’(문학동네)을 펴냈다. 모두 8편이 수록된 창작집은 지난 2014년 ‘신중한 사람’(문학고지성사)에 이은 열 번째 작품집이다. 이에 앞서 작가는 올 봄 아홉 번째 장편소설 ‘사랑의 생애’를 출간한 바 있다.

소설집 제목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이승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대변한 듯한 느낌 때문이다. 작품집 속의 단편 ‘모르는 사람’을 복수화해 붙인 것이다. ‘모르는’은 그동안 작가가 펼쳐왔던 주제의 연장선에 있다. 사유와 종교를 기반으로 한 그의 소설세계는 다분히 형이상학적이고 분석적이라는 평이 따랐다.

수업을 끝내고 왔다는 작가의 말에서, 여전히 바

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그려졌다. 그는 가르치는 교수이자 퇴근해서는 예외 없이 거의 매일 글을 쓰는 작가다. 삶이 온통 창작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소설은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원리, 안다고 믿었던 관계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제기했던 거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그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완전한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를 번역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다른 문화권의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와 같은, 완벽한 이해가 아닌 감으로 느낀다는 의미였다.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호 이해 불가능이 외부인에게까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의 폐쇄적 문제가 원인이죠.”

표제작 ‘모르는 사람들’은 십 일 년 전 말없이 사라진 아버지를 매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세상은 견디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의 부고 기십 일 년만에 온 것이다. 그것도 뜻밖의 장소인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환자인 나는 가족에게서 자신을 ‘떠어맨’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 어머니는 비논리적인 이유를 붙여 아버지의 부재를 설명한다. 아버지가 광고회사 모델과 해외로 몰래 떠났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탐승자 명단에서 여배우의 이름을 보고, 그녀가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 부고를 알린 선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선교활동을 하다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자 가장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위험한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쉽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모르는 사람’중에서)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모르는’ 관계와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변주된다. 단편 ‘복숭아 향기’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유복자였다는 사실을 고향 M시에 근무하고 되면서 알게 된다. 아버지를 잃고 떠나온 곳이어서, 어머니는 M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는 말해져야 할 시간에 말해지고 어떤 이야기는 말해지지 않아야 할 시간에 말해진다”는 표현이 주제 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승우 작가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꾸준한 글쓰기를 강조한다고 한다. “작가는 결국 한두 편으로 평가를 받지만, 쓰는 동안에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의 요즘 글쓰기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을 덧붙인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의 역동성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물론 손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로 글을 쓴다는 것은 사고능력의 핵심인데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뒤라까, 치열한 열정과 끈기가 없는 것 같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캐나다·중국 등 12개국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전석 무료 22~24일 문화전당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창작음악페스티벌이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 페스티벌은 국제무대에서 활동중인 작곡가들이 아시아를 주제로 창작 작품을 연주하는 국제적인 페스티벌이다.

지난해 11월 ACC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시작됐으며 그래미상 수상자인 마이클 도허티 등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캐나다, 중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파라과이, 스페인, 대만, 미국 등 12개국에서 작곡가 및 연주단체가 참여한다.

개막식은 22일 오후 7시에 열린다. ACC 아시아스토리 커뮤니티 구축사업으로 진행된 ‘아시아 100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관현악 연주가 펼쳐질 예정이다.

23일 밤 9시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앙상블 오케스트랄 콩포르테(EOC)’가 ‘아시아 실험영화와 현대음악’을 펼친다.

이 공연은 ACC 아카이브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를 기반으로 한 5개의 작품을 영화와 함께 선보인다.

이밖에 제2회 ACC 국제 작곡콩쿠르에서는 아시아를 주제로 한 공연들이 펼쳐지며 아시안 클래식시절 플레이어즈 오케스트라가 ‘중양이시



지난해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공연 모습. <ACC 제공>

아 스토리’를 펼친다.

또, 어린이를 위한 창작 음악 프로젝트인 ‘어린이 오페라: 내가 만드는 첫 번째 음악’도 준비됐다. 체험을 통한 감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음악창의교육 프로그램이다.

파라과이 재할용 악기 오케스트라의 “H2O 소니노스 데 라 티에라”, 소년소녀 창작 합창 무대, 범음악적 실내악 연주도 마련됐다.

전석 무료. 자세한 내용은 ACC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낭만은 통기타 선율을 타고...연극 ‘가을이 오면’

22~30일 광주 예린 소극장

극단 예린 소극장이 ‘가을이 오면’을 무대에 올린다. 22일~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 예린 소극장.

이번 연극은 예술이 가진 순수성을 상실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연극에서 벗어나 치장되지 않은 단순하고 담백한 무대를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는 연극이다.

감미로운 통기타 선율을 타고 흐르는 가을노래와 낭독극이 함께 펼쳐지는 콜라보레이션 공연이다. 연극에는 노래하는 남자와 연극하는 남자가 등장한다.

1부에서는 노래하는 남자 이용호와 함께 시인,

연주자, 시 낭송가, 엔터테이너 등 감각 게스트가 자리를 함께해 가을 노래와 진솔한 삶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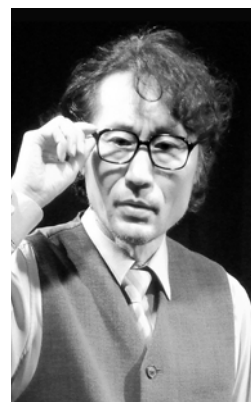
2부에서는 연극하는 남자 윤여송이 ‘귀로 읽는 소설 오발탄(이범선/작)’을 혼자 하는 낭독극으로 준비했다.

극단 예린 소극장은 2002년 창단했으며 지난해 공동 예술의 거리에 예린 소극장을 개관, 연극뿐 아니라 콘서트,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 중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23-2690, 010-4123-608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가수 이용호



윤여송

윤동주 발자취 따라...일본 문학기행 참가자 모집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이 ‘청년 윤동주를 만나다-윤동주 문학기행’을 진행한다.

이번 문학기행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교토와 후쿠오카 일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했다.

문학기행은 윤동주 시인이 유학 생활을 보냈던 교토부터 삶을 마감한 후쿠오카까지 2년 5

개월간의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모교인 도시샤 대학, 시인이 마지막으로 사전을 찍은 우지강 아미가세 다리, 2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후쿠오카 형무소 등 윤동주의 흔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다. 희망자는 교보문고 문화서비스 페이지(https://goo.gl/jfX6QC)에서 27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2-2076-053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번호 10-0562035호
특허번호 10-1097784호
특허번호 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